

◆ 교회목표 ◆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오태희 편집국장: 조선근

새가족에 대한 관심, 전 교회적으로

새가족위원회 신설, 위원장에 강은원 장로

'양육과 적응'을 목표로 양육위원제 설치 운영

교회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새가족(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여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교인,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사와 다른 이유로 인하여 등록한 전입교인, 등록 후 교회를 간헐적으로 다니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교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와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도록 돕고 우리 교회의 교회 회원으로 함께 교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나가기 위해 새가족을 위한 특별한 계획과 관심들이 필요하기에 새가족 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적극 감당기로 했다.

위원회 내에 행정부와 양육부

새가족위원회에는 행정부와 양육부를 둔다. 행정부는 안내, 등록, 환영, 친교, 수료, 배치, 계속관찰, 통계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양육부는 새가족 양육을 전담하며 학습반과 적응반을 두기로 했다. 학습반은 새신자로 구성되어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되고 이 교육이 끝나면 당회의 시회를 거쳐 우리 교회 학습교인이 되도록 했고 적응반은 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사와 다른 이유로 인하여 등록한 전입교인을 대상으로 4주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새가족위원회내에 양육위원제를 신설하고 새가족을 일대일로 도와 그들이 자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을 감당토록 했다. 새가족이 오면 그 새가족의 형편에 따라 양육위원이 선정되고 양육위원은 6개월 내지 1년동안 새가족과 매주 1회정도 만나서 그의 교회생활, 신앙생활 등을 도와 교회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의 길로 가도록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와나갈 예정이다.

양육위원들이 일대일 양육

새가족에 대한 양육은 결국 양육위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고 이 양육위원의 자질과 훈련정도 등에 새가족 양육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새가족 양육위원은 주간 중 1회씩 새가족을 만나 도와 나가는 것이기에 직분과 연령과 교회 봉사부서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연히 양육위원은 철저한 자기 자신이 양육되어지는 경험을 해야 할 것이고 교회는 결국 양육위원으로 어떠한 사람을 선발하여, 어떠한 훈련을, 누가 시킬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양육 - 진정한 기쁨과 감사

그러나 어떠한 희생과 값을 치루더라도 이 제도가 정착되고 기존의 신자들(특히 직분자들)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교회 전체에 확산된다면 교회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각 개인들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새가족위원회내의 일이 아니고 전 교인이 양육위원의 자질을 갖추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나가는 일이 있을 때 큰 열매가 맺힐 것이다.

신설 새가족위원회는 위원장에 강은원 장로, 행정부장에 박승준 장로, 행정부감에 황영일 집사(남), 염숙현 권사(여)와 양육부장에 최대원 장로 양육부감에 김구형 집사(남), 박영엽 권사(여)로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 양육위원을 선발하는 일을 시작했다.

미주선교찬양대 출국

카네기홀 성가합창제 출연

미주선교찬양대가 모든 준비일정을 마무리 짓고 6월26일 오후 3시 김포공항을 떠난다.

오는 7월 10일까지 일정으로 떠나는 미주선교찬양대는 6월27일 뉴욕 카네기홀 성가합창제 출연을 위시해 7월1일 뉴욕에서 할렐루야대회에 참석하여 찬양을 하고, 7월4일 무디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찬양을 하고 7월7일 수정교회에서 찬양을 하게 된다. 이번 찬양대는 총 2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장은 당회장 신성종 목사, 부단장에 노광현 장로이다.

앵커리지 열린문 장로교회
한글성경학교 학생모국교회 방문,
지난 19일 본교회로

앵커리지 열린문장로교회 한글성경학교 학생 22명(인솔교사 3명 포함)이 지난 19일 우리 교회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총 14박 15일의 일정중 3박 4일을 우리 교회에서 보내며 모국교회를 배우게 될 방문단은 오늘 초등3부에 8명, 초등6부에 5명, 중등2부 6명이 교회학교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 학생들과 교제를 나누게 된다.

3박4일의 일정동안 기도원에서 숙식하며 낮시간에는 순교자기념관(용인), 임진각, 땅굴견학, 통일촌교회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지게 된다.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1. 김창민 원로목사

- 6월 20일 한사랑 선교회 목사 안수 축도
- 6월 21일, 22일 수도권회 주교연합회 교사 강습회 설교

2. 신성종 당회장 목사

- 6월 22일 목회자 신학 세미나 강의(연대 백주년 기념판)
- 6월 23일 수도권회 주교 연합회 교사 강습회 설교
- 6월 24일 총신대 목회 신학원 특강
- 6월 24일 '93 기독교장령 총 명성 수련회 설교(오산리 기도원)

수도노회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교사 강습회, 21일 - 24일

수도노회 주일학교 연합회(회장 송기홍 장로) 주최 제22회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교사강습회가 6월21일(월)부터 24일(목)까지 우리교회 교회당에서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모이게 된다. 매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앞두고 노회 단위로 실시하게 되는 교사강습회는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의 주제에 대한 이해와 성경공부 및 운영방안 등을 가르치고 있다.

본 강습회에 김창민 원로목사가 부흥회 인도를,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성경강해를, 유치부 지도 정연희 전도사가 '유치부 성경공부'를, 고등부 지도 장봉생 목사가 '중고등부 활성화 방안'과 '효과적인 중고등부 수련회 운영'을, 청년2부 교사인 전승훈 집사가 '레크레이션' 시간의 강사로 선정됐다.

생명을 구하는
값진 체험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사랑의 헌혈 : 오늘, 본당 앞 광장에서

교회는 서울특별시 남부직심자 혈액원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헌혈' 운동을 전개하고자 요청해 오에 따라 이에 동참기로 했다. 사정이 허락하는 교우들이 일에 다함께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일시 : 1993. 6. 20(주일) 오전 8:00 - 오후 4:00
- 장소 : 본당 앞 광장
- 대상 :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시상식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으로 실시한 성경암송대회 및 그림그리기 대회의 시상식이 지난 주일 저녁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거행됐다. 시상식에 앞서 암송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유인준 집사가 전성도 앞에서 시범 암송을 하여 많은 사람들의 감탄과 부러움이 섞인 박수를 받았다. (사진 / 이승철 집사)

시 몬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한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 보입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라라는 장소는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연안 읍바 항구 바로 윗편에 가이사라라는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 요새는 헤롯이 가이사 아우구스트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은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도시는 헤롯의 아들인 빌립왕이 그 당시에 디베로 가이사라라는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를 기념하는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두 곳이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와 구별하기 위해서 빌립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바로 헬몬산 밑에 있는 도시로 거기에서부터 요단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이 헬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오셨을 때에 조용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이사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 16:13)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마 16:14)

1. 베드로의 신앙고백

그러나 예수님의 주관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대 성인 가운데 하나, 혹은 위대한 스승, 혹은 혁명가 등 여러 가지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고백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존경의 뜻입니다.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랍비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생명이거나 재산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셋째가 가장 중요한 뜻인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주, 아도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구약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주'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기쁨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왕과 예언자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기쁨부음을 받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라는 뜻입니다. 메시야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는 뜻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지혜가 많은 사람을 지혜의 아들, 재물이 많은 사람을 재물의 아들, 무자들은 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새끼의 아들이라는 말은 새끼에라는 뜻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신성, 즉 그가 하나님 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의 대답과 그에 대한 바른 해석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이사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7절)고 하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본래 시몬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음역할 때 시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시몬은 히브리어이고 베드로는 페트로스, 즉 헬라어에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라고 부르셨을 때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람어로 '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란 '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아

버지 이름이 요나, 혹은 요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이사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7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고백은 혈육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교

충현강단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 16:13-20)



신 성 중

<목사·당회장>

회에 오래 다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나 지나 신앙고백을 바로 하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집니다.

(2)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 18절과 19절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상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온 구절로서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주장하기를 '이것은 바로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다. 베드로 뒤에는 교황들이 그 권리를 이어간다. 그러므로 천주교가 정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립니다. 원어로 얘기하면 '너는 베드로라' 하는 말은 '수에 페트로스' 즉 '너는 페트로스라'가 됩니다. 이 페트로스라는 말이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원문에 보면 '너는 작은 바위라 내가 이 반석 위에'에서 반석이란 '페트라'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할 때는 남성명사를 썼는데 '이 반석 위에' 할 때는 여성명사를 썼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반석이라는 뜻과 뒤에서 말하는 반석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너는 페트로스라'는 말은 너는 작은 바위라는 뜻이고, '내가 이 페트라 위에'에서 페트라는 기초가 되는 암석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시몬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기초한 것입니다. 진실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딱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이 돌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백들장처럼 그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기독교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고 그 위에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들에 의해서 계속되어 간다는 말은 이 원어를 바로 해석하지 못한 데서 온 신학적 실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음부라는 말은 '하데스'라는 말입니다. 하데스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스올'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죽음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사

탄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날뛰고 죽음이 날뛰어도 부활이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를 결단코 파멸시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3)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바로 인간의 삶을 다스릴 교회의 권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을 교회가 좌지우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단코 베드로의 사면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권한을 손상시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면할 수 있습니다.

요한 칼빈에 의하면 이 말은 그에게 사도직을 준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결정했습

니다. 바로 그런 권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그들은 사도로서의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면 사도로서의 권한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그 사도적 권한은 일회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던 그 역할은 계속 내려오지만 소위 기독교를 창립하는 사도로서의 권한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어떤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은 교회의 논쟁에 대한 금지, 논쟁을 금지하거나 허락하는 능력을 바로 이들에게 주었던 것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기독교를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종합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12마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 세례 문답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내용은 사도들이 고백한 내용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 즉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시몬 베드로의 신앙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살펴 보았습니다. 지나 여러분들도 시몬 베드로처럼 칭찬받을 만한 바른 신앙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천국의 열쇠는 사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 천국에 가는 문이 열려집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 할 때에는 천국의 문이 닫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천국 가는 길이 계속 열려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심실종신고



어느날 나는 꿈을 꾸었다. 문득 내게 영감이 왔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가서 내게 영감이 없었으니 찾아달라고 실종신고를 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영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고 나에게 물었다. 그래서 설명을 했으나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서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을 찾아가서 내 영감을 찾아달라고 정말 간절히 부탁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글쎄 형위대에 가면 혹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요." 하고 별 서툰 다 본다는 식으로 서운하게 대답을 하였다.

할 수 없이 나는 법관들을 찾아가서 협력을 구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지금에 여는 서대문에 영감을 찾아야 이 세대에 일어 남으려면 빨리 양심 찾는 것을 포기 하라." 하고 내게 충고해주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나는 신문에 양심실종신고 광고를 내기로 했다. "내 영감을 찾아 주면 후회 사례함"

글 // 신성중 목사

양육위원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양육위원들의 업무와 양육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

새가족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자세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새가족들과 일대일로 직접 부딪쳐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양육위원들의 역할은 더욱 중차대하게 되었다.
양육위원들의 업무와 양육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를 알아본다.

1. 양육이란 무엇인가(살전 2:7-12)

1) 새신자를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은 전도와 아울러 수례의 두 바퀴와도 같은 것이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될 전도의 완성인 것이다.

2) 양육이란 영적으로 연약한 자를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3) 가장 오랫동안 지속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양육은 일대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2. 새신자 양육의 기본요소

- 1) 사랑
- 2) 영양(영적 양식)
- 3) 보호
- 4) 훈련
- 5) 계속적인 관심과 관찰

3. 새신자의 정의

- 1) 예수를 처음 영접하며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교인
- 2)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사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등록한 전입교인
- 3) 등록 후 교회를 간헐적으로 다니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있는 교인

4. 새가족 양육 교육프로그램 (새신자 교육과정)

1) 학습반 교육교재

1과에서 26과(매주 1과씩 26주분)까지의 교육교재를 아래 내용으로 편성한다.

- (1) 구원의 확신
- (2) 성경개요(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를 닮아감)
- (3) 기독교 교리(진리위에 굳게 섭)
- (4) 기독교 신조(주기도문, 사도신경, 십

계명에 대하여)

- (5) 성도의 생활(자립하고 재생산하는 신앙)

2) 적응반 교육교재(안)

- (1) 제1주 중현교회의 설립, 성장배경, 전통, 교회적 책임
- (2) 제2주 교회조직과 해설
- (3) 제3주 교회내 견학
- (4) 제4주 기도원 방문, 기도회

3) 교육기간

- (1) 학습반 6개월
- (2) 적응반 4주간

4) 교육장소 갈릴리움 및 기타

5) 편성성

- (1) 학습반
 - 1과에서 26과까지 편성한다(26주가 지나면 수료한다).
 - 같은 주에 등록한 교인을 한 과안에 두며 과 아래에 몇개의 반을 둔다.
 - 반의 구성원은 3-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적응반

- 1반에서 4반까지 편성한다(4주가 지나면 수료한다).

6) 수세관계

- (1) 학습반을 수료한 교인은 당회의 시취를 거쳐 중현교회 학습교인이 된다.
- (2) 학습인은 교회학교 각부에 배치된다.
- (3) 학습인이 된 다음 6개월 후에 당회가 면접하여 가하면 새가족교인이 된다.
- (4) 새가족교인이 되기까지 위원회에서 계속 관찰하여야 한다. (예: 교회출석 확인, 봉사 확인, 전교 유지, 문제해결 지원, 수세 지원 등)

7) 새가족 양육 교육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특전

- (1) 학습문답 면제

- (2) 우수 수료자는 교회 봉사직 임직에 우선권 부여

5. 새가족 환영회

- 1) 매 예배시간에 환영한다.
- 2) 매주 교구모임에서 환영한다.
- 3) 격월로 전체 새가족환영회를 한다. (교회적 차원에서 실시)
- 4) 매년 6월중에 전체 새가족 환영 야외예배를 가진다.

6. 새가족 양육위원이란 누구인가

- 1) 새신자들의 양육을 책임맡은 1대 1의 교사를 말한다.
- 2) 새가족 위원회의 전요원을 말한다.

7. 양육위원의 임무

1) 복장과 자세

- (1) 단정한 복장으로 반갑게 맞이해야 한다.
- (2) 표정이 밝아야하고 묻는 말에 친절하고 명확하게 대답해야 한다.
- (3) 무슨말이라도 들어주는 자세여야 한다.
- (4) 적절한 호칭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예: 선생님, 성도님, 교우님 등등).

2) 영접실에서 할 일

- (1) Lobby 혹은 안내대에서 새가족들을 맞이해야 한다.
- (2) 등록을 권유하여 등록하는 일에 도움을 준다.
- (3) 예배당내에 자리를 만들어 주고 예배시간에 환영을 받게 한다.
- (4) 예배가 마치면 영접실로 안내하여 자리를 만들어 준다.
- (5) 다과, 음료수, 환영선물 등을 제공한다(찬송가, 교회요람, 설교테이프 등)
- (6) 모든 절차가 마치면 책임자 혹은 담당 양육위원에게 인계한다.

3) 양육과정에서 할 일

- (1)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와 권면과 사랑을 해야한다.
- (2) 양육 대상자가 정해지면 24시간 이내로 전화 심방하여 다음 심방을 약속한다.
- (3) 양육기간중 계속 심방하여 친근해져야 한다. (해당교구의 교구일꾼과 동행)
- (4) 자신의 힘으로 잘 양육을 못할 때는 동역자나 교역자의 도움을 요청한다.
- (5) 새가족 교육과정 및 학습, 세례 준비 공부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유 동행한다.
- (6) 교회행사에 권고 동참한다. (예배/집회/성경공부/교구모임/전도)
- (7) 각종 보고서 제출(양육일지/심방보고서/양육평가서)
- (8) 양육통신업무(양육서신 26통/주보/주간충현/독려/옆서 등 발송)
- (9) 양육기간은 학습반을 때까지나 배치 후에도 계속 관찰의 의무가 있다.
- (10) 결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결석하였을 때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교구와의 관계

- (1) 양육위원과 새가족의 해당교구 일꾼이 같은 사람인 경우가 바람직하다.
- (2) 새가족이 등록하면 즉시 교구에 서류로 통보하고 협력하여 양육한다.
- (3) 양육기간 중 새가족 심방은 교구 일꾼과 공동으로 책임진다.
- (4) 새가족부 수료 후에 할 일
 - (1) 배치되는 교회학교 부서명, 담당교사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최소 6개월간은 관심을 가지고 교회출석이 나쁘거나 신앙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교회학교와는 상관없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8. 양육위원의 선발 기준

- 1) 새신자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진 사람
- 2) 전도보다 양육에 재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겸손하며 조심성 있고 진실하여 인격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
- 4) 신앙의 년조가 있고 교사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교구 일꾼으로 오래동안 봉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

9. 양육위원의 교육과 훈련

새신자를 양육하는 양육위원들이 먼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새신자들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육위원은 양육에 관한 특별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 1) 새가족 교육교재에 의한 교육
- 2) 영성훈련
- 3) 양육 및 행정훈련

10. 양육위원에 대한 특전

- 1) 권찰, 집사, 교회 봉사직에 우선 임명
- 2) 집사, 권사고시 면제
- 3) 양육비용 실비제공

11. 새가족 양육체계

- 1) 등록, 환영, 집전 (당회장혹은위원장) 제1일(주일)에 실시
- 2) 등록심방 월요일에 전화심방 및 가정심방 약속
- 3) 새가족 성경공부
- 4) 기존 회원과의 융화/교회적응/전교/정착화
- 5) 구역 및 자치 기관과의 연계
- 6) 학습
- 7) 새가족 위원회 수료후 계속 관찰
- 8) 교회 봉사직 임직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6월 20일(주) 한사랑선교회 목사안수축도, 6월 21일(월), 22일(화) 수도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강습회 설교
· 신성중목사님 : 6월 22일(화) 목회자신학세미나 강의 (연대 백주년기념관), 6월 23일(수) 수도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강습회 설교, 6월 24일(목) 충신대 목회신학원 특강, '93 기독교장병 중 영성 수련회 설교(오산리 기도원)
2.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3. 미주선교한양대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마지막 연습과 준비위에 함께하소서.
4. 1993년도제3차 학습·세례식에 참석하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5. 제22회 수도노회 주일학교 교사강습회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받고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토막소식

- ◆ 유치부에서는 19(토) 전교사가 교회 주변 어린이들을 전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로 준비 해온 전도를 실시했다.
- ◆ 초등1부에서는 6월27일(주일)에 '2학기 성경교사'가 실시된다.
- ◆ 초등4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대원을 추가 모집한다. 6월 20일(주일) 분반공부 후에 모집 시험이 있다.
- ◆ 초등6부에서는 안드레 586 전도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나의 전도 결심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 ◆ 중등3부에서는 6월27일(주일)에 설교노트 기록상 시상식이 있다. 노트뿐만 아니라 마음 판에도 새기며 실천으로 옮기는 중등3부가 된 ◆ 중등2부의 여름수양회가 7월 21일(수) - 24(토)에 개최될 예정. 교사와 참여자들이 마음을 준비하며 많은 참여와 기도로 준비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 ◆ 고등부에서는 분반공부 후에 성극부실에

- 서 3월 이후부터 온 신입생을 위한 '환영회'가 있으며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자신에게도 소중한지만 남에게 꼭 주고싶은 물건을 나누는 '사랑의 나눔터'를 갖는다.
- ◆ 대학부에서는 6월 28일~7월 2일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 (십계명 강해)라는 주제로 여름수련회로 모인다. 기도로 준비하고 신청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 ◆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1,2,3부는 현재 각부 면려회 임원들이 중심이 된 청년부 면려회 임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 ◆ 청년1부는 오늘 13:30 교사실에서 정기교사회로 모인다.
- ◆ 청년2부에서는 청년2부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다. 함께 VISION을 나누며 의견을 교환하며 청년2부의 성장을 위해, 하나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청년3부는 그동안 수고하셨던 김해규 목사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김 목사는 '십사년 후에'라는 고별 설교를 했다.
- ◆ 새가정부에서는 오늘(6월20일) 반별대항 성경퀴즈대회가 있다. 새가정부의 전 가정의

- 많은 참여와 준비를 바랍니다. 6월27일 총동원주일로 정하여 새가정부의 전회원 가정, 장기 결식가정과 무신론가정을 집중적으로 동원하기로 하였다.
- ◆ 장년1부에서는 하기 수련회 준비 교사가 도회가 18일 충현기도원에서 실시된다. 또 오늘은 권성수 목사의 신앙 간증 시간이 있다.
- ◆ 장년3부에서는 수양회를 위한 특별 준비기도회가 18일(금) 오후 7시 칼빈홀에서 있다.
- ◆ 장년4부에서는 충현의 60대를 장년4부로 모셔오는 일에 장년4부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을 부탁하며 60대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 에바다부의 하기 수련회 (학생반)은 7월 22일(목) - 24(토)까지, (성인반)가 8월2일(월) - 4일(수)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있으며 오는 성경다독시상이 있다.
- ◆ 사랑부에서는 교사들의 영성훈련과 신앙 훈련을 겸하여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교사철야기도회를 6월20일(주일) 오후 6시부터 충현기도원에서 갖는다.

직원모집

본교회 사무국에서는 참된 청지기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함께 일할 가족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경비직 : 남○명
40-50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남성도
- 미화직 : 여○명
40-50세의 여성도
- 사무직 : 남○명, 여○명
남자는 병역을 필한자로서 운전면허 소지자, 여직원은 PC 경험자
- 자격 및 제출서류:
각각 공히 세례교인으로써 본 교회 직원 복무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
1. 이력서 1부(사진첨부)
2. 교구목사 추천서(본교인) 1부
3.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1부
- 제출처 : 충현교회 사무국
(☎552-8200, 교 402)

군전도회 수련회 마쳐

6월14, 15일 동해안 각 부대에서

군전도회(회장 김재명 장로)는 군전도회 설립 1주년을 맞이하며 하기수련회를 동해안 각 부대에서 지난 6월14,15일간 가졌다. 회원 132명(장로 4, 권사 71, 집사 47, 성도 10)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본 수련회는 해군 제○함대 사령부 전투함대 갑판 위에서 장병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위로금을 전달하며 함대를 견학하고, 함대 사령부 동해교회,



○○사단 동해교회, ○○사단 백두산 교회 등을 방문하여 위문품 및 위로금을 전달하고 전도활동에 관한 소식을 들으며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회원들은 군복음화의 현장과 군복음화 활동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새롭게 군복음화에 대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기회들이 되었다.

군전도회는 매주 본당 108호실에서 군관계에 대한 병무상담을 실시한다. 한편 군전도회는 6월25일 오후 6시에 만나홀에서 군전도회 설립 기념잔치를 할 예정인데 이 때 제2훈련소 입소대대 교회의 김명환 군목의 특강도 있게 된다.

성경연구원 1학기 수료식

성경연구원 93년도 제1학기 수료식이 오늘 저녁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열린다.

교사양성부, 찬양대원 양성부, 주간 성경공부 및 크로스웨이 성경공부가 모두 수료하게 되는데 제38기 교사양성부는 138명, 제8기 찬양대원 양성부는 7명 수료, 주간성경공부 및 크로스웨이 성경공부는 204명의 이수자를 내었다. 한편 모든 과정에 개근한 사람 106명에게 개근상도 수여되고, 기간중 각반에서 모범적으로 섬기며 봉사한 사람 20명에게 모범상이 주어진다.



원로 목사들 모이다.

지난 월요일(6월 14일)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예장 합동 총회 산하 서울지구의 원로목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였다. 총 14명 중 김현중, 박일우 목사를 뺀 12명이 모여 서로 교제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는 박만식(길동교회), 김재술(강남교회), 박명수(청량리교회), 양세록(대림교회), 이병철, 김창인(충현교회), 양태규(목동중앙교회), 조규명(신광교회), 한석지(동암교회), 이광수(신반포교회), 홍창우, 박오한 목사(대전 남부교회)

선교지에서 온 편지

더욱더 어려운 현실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몇몇 형제들이
경찰에 의해 심한 고문을 받고 많은 개종자들도
감혀있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 애굽은 낮 평균 기온이 섭씨 38-40도를 기록하는 무더운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었는데 지금쯤이면 서울도 기온이 많이 올라있는 초여름 날씨라 생각 합니다.

이 더운 날씨 중에도 김창인 목사님, 신성종 목사님 그리고 주안에서 모두 평안하신지요?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저는 요즘 카이로 한인교회를 은혜중에 잘 인도하고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에 출강하여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4일에는 카이로 한인교회 춘계 성례식을 거행하여 학습 1명, 입교 1명 개종 2명 세례 2명의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집트는 지금 무슬림 극렬분자들의 테러행위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안이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카이로 시내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폭발사고가 있었고 4월 11일에는 이집트의 남부도시 아슈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 경찰서장이 순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적인 총격사건과 사제 폭탄 투척사건 등 여러 곳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로 사회적으로 불안이 야기됩니다. 그런가하면 종교적으로는 F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들이 경찰당국에 의하여 추방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몇몇 선교사들이 수사당국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으며 또 선교사는 지금까지 구금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더 어려운 현실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몇몇 형제들이 경찰에 의해 심한 고문을 받고 많은 개종자들도 감혀있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애굽의 선교를 위해 늘 기도해주실 때 이와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애굽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카이로 한인교회 애굽인 교회 및 개척교회들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저와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주 소 : Maadi P.O.Box 334 Cairo Egypt
전 화 : 001-202-350-4620

이집트에서
이 준 교 선교사 드림